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⑱

꿈이 현실이 되는 길



캄보디아 최북단 뽀디봉 마을에서 꿈을 키워가는 '수레꾼 스쿨 타운'의 상상 조감도.

'촉발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나 스토리텔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영어로는 '인사이팅 인시던트(Inciting Incident)'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으며 구름이 흐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인물들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야기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작은 불씨인 셈입니다.

지난 8월 말,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 거사님으로부터 온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무 농사를 지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한번 자리 잡으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장기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권해드립니다. 나무 농사를 계획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제안이었습니다. 공예학교를 세울 때부터 이곳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바람과 학교가 스스로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깨우쳐 줘야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뽀디봉 초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수적인 중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수레꾼이 만들고 있는 영화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면, 졸업생과 주민들이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공예학교를 세운 일은 제2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제 조경수를 심고 길러 판매하는 나무 농사는 교육과 일자리, 학교의 재정 자립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11월부터 뽀디봉 학교의 유휴부지에 나무를 심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예학교에 기존의 봉제반과 목공예반에 이어 나무를 관리하고 꽃과 채소를 가꾸는 원예반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물, 집, 전기가 없는 황무지 땅에 초등학교를 세운 수레꾼들의 작은 불씨가 여기까지 번져왔습니다. 한 편의 영화라면 이제 이야기가 무르익어 클라이맥스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산속 절을 가다보면 계곡 주변에 쌓아놓은 작은 돌탑들을 만나곤 합니다. 누군가가 돌 하나를 주워 놓고, 다음 사람이 그 위에 또 하나를 올려놓은 돌탑들입니다. 어떤 돌은 올려놓다가 굴러떨어지고, 어떤 돌은 뜻밖의 자리에 놓여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수레꾼의 학교도 그렇게 세워지고 키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보태고, 그 누군가가 손길을 보탰습니다. 뜻대로 이뤄진 일도 있었고, 애써 쌓은 돌을 다시 올려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삶과 마음이 더해지면서 수레꾼의 이야기는 이제 긴 여정이 됐습니다. 한 편의 멋진 스펙타클 영화가 됐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는다고 곧바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뽀디봉의 땅과 기후에 맞는 나무를 골라야 하고, 지하수와 관수시설도 마련해야 하며, 묘목을 돌볼 수 있는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수레꾼이 하나씩 풀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방향은 멀리 보지만, 오늘은 내 앞의 돌 하나를 소중히 그리고 정성껏 쌓아갑니다. 돌 하나 올리고 욕심 하나 버리면서요.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⑨ 감사와 나눔의 추석 공양

정성 올리고 은혜 되새기는 한가위

사찰에서는 추석을 맞아 조상과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고, 먼저 떠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합동차례와 공양을 올린다. 가족과 법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이다.

추석날 아침, 도량에는 정갈한 손길이 이어졌다. 정성껏 마련한 공양물을 불단에 올리고 차를 달여 부처님께 올렸다. 햇곡식과 제철 과일, 나물과 송편 등 가을의 결실을 담은 음식에는 자연이 베푼 은혜와 이를 가꾼 이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법우님들이 모여 송편을 빚으며 마음을 나눴다. 송편은 단호박, 쑥, 자색고구마, 비트, 당근으로 다섯 가지 빛깔을 내어 곱게 빚었다. 속에는 찧은 깨를 꿀에 버무려 넣어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풍미를 더했다. 자연의 색감을 살린 송편은 한가위 공양상을 곱게 물들였다.

송편을 찔 때는 사찰 인근에서 채취한 솔잎을 찜솥 바닥에 가지런히 깔았다. 그 위에 정성껏 빚은 송편을 올리고 다시 솔잎을 덮어 쪄냈다. 찜솥의 뚜껑을 열자 송편에 스며든 은은한 솔향이 도량 가득 싱그럽게 퍼졌다. 산에서 얻은 솔잎과 법우님들의 정성이 어우러져 특별한 한가위 음식이 됐다.

갖가지 나물은 삶거나 데친 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무쳤다.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으로 만든 부각은 모나카 깍지에 하나씩 담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했다. 밥은 제철을 맞은 햇밤을 넣어 고슬고슬하게 지어 가을의 깊은 풍미를 더했고, 강화도에서 한 법우님이 농사지어 보내준 순무는 곱게 갈아 담백한 전으로 부쳐 공양상에 올렸다.

명절 음식은 함께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되기도 한다. 법우님들은 도량에 모여 재료를 다듬고 송편을 빚으며 안부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살폈다. 누군가는 송편을 빚고, 누군가는 나물을 준비하며, 또 다른 이는 차를 달였다. 각자 마련한 음식을 부처님께 먼저 올린 뒤 모두가 함께 나눴다.

자연의 은혜에 정성 더해 올린 차례상

오색 송편에 햇밤밥, 나물·순무전 올려

감사 나누고 서로 아끼는 마음 깃들어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내가 먹는 한 숟가락의 음식이 상에 오르기까지 햇빛과 비, 흙과 바람이 있었고 수많은 손길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찰의 명절 음식에는 '많이 차리는 것'보다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추석에는 먼저 가신 분들을 향한 마음도 더욱 깊어진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차를 올리며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 온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되새긴다. 차 한 잔과 소박한 음식에도 그리움과 감사가 담긴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풍성한 결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받은 은혜를 다시 이웃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한가위가 전하는 참뜻일 것이다. 추석날 사찰의 공양상에 오른 소박한 음식 한 접시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욕심을 덜고 자연의 맛을 살려 정성껏 나눈 음식 한 끼에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고운 마음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보름달이 도량을 환하게 비추는 추석날, 법우님들과 함께 빚은 다섯 가지 빛깔의 송편에 은은한 솔향이 머물렀듯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인연의 향기가 오래 머물렀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다시 나누며, 사찰의 한가위는 조용히 저물었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㉟ 강남의 하늘빛

한남대교(1969년 12월 준공)가 놓이기 전 서울 강남 신사동의 땅값은 평당 200원 정도였다. 한남대교가 지어지기 전까지 서울의 남북을 잇는 다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한강대교와 광진교가 전부였다. 남산1호터널에서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로 연결되는 이 다리는 결과적으로 강남 개발의 고속도로가 됐다.

1979년 가수 혜은이가 '제3한강교'(한남대교의 처음 이름)를 노래할 때만 해도 이 다리에는 낭만이 흘렀다. 1982년까지도 윤수일의 (강남) '아파트' 가는 길은 '갈대숲'을 지났다. 하지만 그 갈대숲이 '빌딩숲'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국전력 본사(1986년), 코엑스(1988년), 인터컨티넨탈 호텔(1988년)이 강남의 심장부를 이루었다. 요즘 이곳을 지나다 보면 빌딩의 벽면마다 동영상 광고가 쓰나미처럼 흘러넘친다. 자본주의를 장악한 디지털 점령군의 펄럭이는 깃발이다. 강남은 이제 빌딩의 벽면조차 그냥 비워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에 10조5500억원에 팔려서 헐린, 옛 한전 본사 건물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선큰(Sunken)의 벽면은 한국 도예의 새 길을 연 권순형(1929~2017) 선생의 '도자벽화' 작품 '동률, 역동'이었다. 벽화가 완성된 후 촬영 의뢰를 받아 사진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 멋진 벽이 사라질 때 나는, 물리적 통증을 동반한 상실감을 느꼈다.

강남 봉은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대자대비'다. 이 절마저 없었다면 강남의 하늘빛은 얼마나 우울할 것인가.

손영자 작가


봉은사 대웅전.

